



드라마와 영화가 TV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크로스오버'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최근 상영 중인 영화 '방법:재차의'(왼쪽 사진)는 드라마 '방법'의 스크린 확장판이다. 웹툰 원작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오른쪽 사진)도 곧 영화로 만들어진다.



사진제공 | CJ ENM

드라마×영화, 크로스오버 영역을 깨다

드라마 스페셜 'F20' 극장서 선공개
'타인은 지옥이다' 앞선 상황 영화화
'방법' 드라마 인기 이후 확장판 개봉
"해외서 인정...글로벌 경쟁력 갖춰"

TV드라마와 영화, 스크린과 안방극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드라마가 이야기를 확장해 스크린으로 향하고, 영화의 드라마화와 함께 영화적 감각을 표방하는 드라마도 늘고 있다. 플랫폼 다변화 경쟁, 한국영화와 드라마의 해외성과 등 다양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시선이 나온다.

●드라마는 영화로, 영화는 드라마로

18일 KBS는 단막극을 새롭게 선보이는 '드라마 스페셜 2021' 방영 계획을 발표했다. KBS는 "10월 2TV '드라마 스

페셜 2021'을 통해 90분 편성의 TV시네마 4편과 70분 편성의 단막극 6편 등 10편을 선보인다"면서 이 가운데 "채우 작가·홍은미 PD의 'F20'을 극장에서 먼저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의 자회사 스튜디오N도 다양한 드라마를 영화와 애니메이션화한다. 2019년 OCN '타인은 지옥이다'의 이야기에 앞선 상황을 그리는 프리퀄 영화를 만든다. 올해 방송한 tvN '여신강림'과 9월 tvN과 OTT 티빙을 통해 공개하는 웹툰 원작 '유미의 세포들'도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인다.

이에 앞서 2014년 OCN 드라마 '나쁜 녀석들'의 스크린 버전 '나쁜 녀석들:더 무비'가 2019년 관객을 만났다. 또 지난해 MBC가 웨이브와 함께 TV와 스크린, OTT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선보인 'SF8' 시리즈는 아예 '드라마와 영화의 크

로스오버'를 표방했다. 올해 7월28일에는 영화 '방법:재차의'가 개봉해 한창 상영 중이다. 지난해 tvN 드라마 '방법'의 스크린 확장판이다.

●플랫폼 다변화...경쟁력 강화

'방법'의 대본과 '방법:재차의'의 각본을 각각 쓴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을 연출하고 있다. 2019년 자신이 스토리 작가로 참여한 동명 웹툰을 영상화한다. 또 2011년 선보인 그의 애니메이션 '폐지의 왕'도 드라마로 제작돼 티빙을 통해 공개된다.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과 '덕혜옹주' 허진호·'극한직업'의 이병헌·'재심'의 김태운 감독 등 스크린 연출자들도 잇따라 드라마 현장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감염병 확산으로 영화

계와 극장가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무대가 필요하게 되고, OTT 등 플랫폼 다변화로 더 많은 콘텐츠 수급이 중요해진 상황이 배경으로 꼽힌다. 스튜디오N 권미경 대표는 "영상 플랫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고정관념을 깨고 작품을 기획하는 것이 최대 경쟁력인 만큼 재밌는 작품의 이야기 길이가 플랫폼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영화와 드라마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으며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요인도 있다. 권 대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작품 개발"을 강조했다. KBS도 "단막극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다양성 확보"를 표방하며 "우수 작품을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한다는 계획과 함께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활로 모색"을 내세웠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김승우 연출 웹드라마 '더 드라이버' 연말 공개



김승우

배우 김승우가 두 번째 웹드라마 연출작 '더 드라이버'를 내놓는다. 18일 제작사 더 퀸AMC는 김승우가 직장에서 정리하고 당한 대리운전 기사의 이야기를 그리는 12회 분량의 웹드라마를 연출해 연말 공개한다면서 출연진을 공개했다. 제작사는 "주인공 대리운전 기사 역은 안재욱이, 아내 역은 이태란이 각각 맡는다"고 밝혔다. 안길강, 이재룡, 강남길, 오만석, 이종혁, 윤현민, 에이핑크 오하영 등도 출연한다. 김승우는 "사회 속 다양한 인간군상의 희로애락을 보여줌으로써 힘겨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BTS '日 베스트앨범' 美 빌보드 200 상위권에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 베스트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상위권에 올랐다. 18일(한국시간)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일본 앨범 'BTS, 더 베스트'가 '빌보드 200'에 19위로 진입했다. 방탄소년단의 일본 앨범으로는 자체 최고 데뷔 기록이다. 일본에서는 6월 발매 직후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에서 세 차례 정상에 오르는 등 인기를 모았다. 이들은 신곡 '퍼미션 투 댄스'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55위에도 올랐다.

6년째 연애 현아·던 커플, 이번엔 듀엣 앨범 작업

내달 9일 공개...농도 짙은 연출 기대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올해 6년째 공개 연애 중인 가수 현아와 던이 다음달 듀엣으로 나선다. 그야말로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다.

18일 소속사 피네이션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9월9일 듀엣 활동을 시작한다. 최근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치고 막바지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두 사람은 그동안 각자 솔로 활동을 펼치며 서로 피쳐링을 해주는 등 동료로 역할해왔다. 2017년 펜타곤의 멤버 후이와 합



현아(왼쪽)와 던

께 3인조 프로젝트그룹 '트리플H'로 활동했지만 실제 연인으로서 정식 듀엣의 입을 맞추기는 처음이다.

이들은 각종 방송프로그램과 패션 화보 등을 통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만큼 듀엣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소에도 과감하게 애정표현을 해왔던 터라 듀엣 활동에서도 한층 농도 짙은 퍼포먼스를 펼칠 전망이다.

현아는 2009년 데뷔 이후 장현승, 후이 등 남자가수와 '트리플메이커', '트리플H' 등 프로젝트 그룹으로 잇따라 활동하며 탄탄한 팬덤을 구축해왔다. 그와 함께 던은 첫 듀엣 활동을 펼치며 스톱 디오 톨루랄라 리얼리티 프로그램 '아인 판인 땡큐 앤 유?'로도 팬들과 활발히 소통할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BTS 뷔·블핑 지수 캠페인 동참 터키산불 '묘목 기부' 행렬 감동

한국 스타 팬덤의 선한 영향력이 터기에도 미치고 있다. 최근 터키 국민들이 대규모 산불 피해로 고통을 겪는 가운데 배우 선수 김연경을 비롯한 한국 스타들의 팬덤이 내민 위로의 행렬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 이에 터키 언론과 환경운동단체들이 감사함을 표했다.

행렬은 4일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8강전에서 대한민국이 터키를 상대로 승리하며 시작됐다. 당시 터키 선수들은 산불 피해로 힘겨워하는 자국민들을 선전으로 위로하고 싶었지만 좌절되면서 눈물을 흘렸다. 터키에서는 지난달 28일 남부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이 확산해 10만 헥타르(ha) 이상 규모의 숲이 파괴됐다. 수백여 사상자와 수천여 이재민도 발생했다.

이에 터키 프리리크에서 크게 활약한 김연경의 팬들이 그의 이름으로 묘목을 보내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제이홉·뷔·지민의 국내외 팬들이 동참했다. 블랙핑크의 멤버 지수의 팬들도 힘을 보탤었다. 이들은 SNS 등 온라인에서 #prayforturkey(터키를 위해 기도하자) 등 태그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재단 임병인 터키 이스탄불 통신원에 따르면 현지 언론이 이에 관심을 드러내는 가운데 한국 록밴드 와이아이의 팬들도 묘목을 기부하고 있다. 2019년 현지 콘서트를 열기도 한 그룹은 지난해 이스미르 지역을 강타한 진도 7.0 규모의 강진 때에도 SNS로 팬들에게 터키를 돕자는 캠페인을 펼쳤다.

임 통신원은 현지 단체를 인용해 "묘목을 기부하는 한국인들이 날마다 줄을 잇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위로의 손길은 12만 묘목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터키 환경단체연대협회 등은 홈페이지에 한글로 감사를 표했다. 환경단체연대협회는 17일 "말려주신 묘목을 오랜 우정처럼 지켜주고 가꾸고자 한다"면서 "형제애의 표시로 한국·터키 '우정의 숲'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슬의생'이 쏘아올린 장기기증 희망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시즌 1부터 장기이식 및 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뤘었다. 드라마의 배경인 올세병원에 근무하는 주인공 5인방 가운데 세 사람이 장기이식 수술을 주로 맡는 간담체외과(조정석), 소아외과(유연석), 흉부외과(정경호)에 몸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에 자주 담기면서 자연스럽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시청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문의 10배까지"

'슬기로운 의사생활'(슬의생)은 기증자와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 이들의 가족과 의료진 등 장기기증과 관련한 다양한 시선을 균형 있게 담아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슬의생'의 자문역인 송상희 서울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는 18일 "각 에피소드의 현실성이 높고,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이라 시청자의 공감을 얻는 것 같다"고 밝혔다.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다. 실제로 6월24일 방영한 시즌2 2화에서 두 딸의 간을 이식받고도 술을 마신 환자의 이야기로 실화를 그렸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가족이 서로를 보듬는 모습도 현실과 다르지 않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두려움이나 편견을 깨는 반응도 많다. "장기기식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등록만으로도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30년 만에 만난 어머니의 장기기증에 동의한 아들

이식 대기자 사연 등 드라마 방영 후 기증 희망 문의전화 최대 10배 증가

의 이야기가 등장한 5일 방송 직후 평균 100건에 머물던 문의 전화가 1000건 가까이 늘어나 3~4일간 폭발적으로 이어졌다.

●"의료진 환경도 잘 드러내 뿌듯해"

장기기식 의료진이 분초와 사투를 벌이는 일상을 세심하게 그린 점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극중 이식외과 코디네이터 김비비가 뇌사 판정자의 가족에게 어렵게 장기기증을 권유하고, 최소 시간 안에 장기를 전달하는 과정이 매혹 그렸다고 있다.

송상희 코디네이터는 "주변에서 막연하게만 받아들였던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들의 업무와 사망감이 드라마에 잘 드러나 뿌듯하다"면서 "종합병원이 배경인 드라마인만큼 장기이식 대기자들의 사연이 많지만, 기증자와 그 가족의 숭고한 희생도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